

# KREI리포터 11월 전남지회 간담회 결과

## 1. 회의 개요

- 목 적: 농업·농촌 현장여론 수집 및 회원 농가 견학(농촌융복합산업)
- 일 시: 2019년 11월 25일(월) 11:30~15:00
- 장 소: 전남 장성군
- 참 석: 총 7명
  - 전남지회 리포터(7명): 김천중, 노응곤, 남양완, 주양호, 이재월, 김진환, 신규호
- 주요 일정

시 간	일 정	비 고
11:30~12:00	점심식사	
12:00~13:00	견학	백련동 편백농원(김진환 회원 농가)
13:00~15:00	간담회	

## 2. 주요 내용

### 1) 농업·농촌 현장여론 수집

- 농업·농촌 정책에 담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한다. 현장에 자주 방문하고 관련 행사에 농업인의 참여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 정부에서 투자를 많이 하지만 그에 대한 정책 효과는 크지 않다. 계획이 하향식으로 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을 못 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축제나 지자체 성공사례는 무조건 따라 하기 식의 사업에 문제가 많으며, 이는 공멸의 길이 될 것이다. 각각의 특성을 유지하도록, 성과 중심이 아닌 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정부의 현장 애로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
-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농촌 체험활동은 농촌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향후 농촌관광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지

원해야 하는 활동이다. 단 다양성, 차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지나친 규모화, 획일화되지 않게 유의해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농촌관광등급제는 모두 적용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 지원이 필요하다.

- 공무원의 잦은 이동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문제이다. 특히 농업계 공무원은 1~2년에 한번씩 변경되어 사업이 일관되게 진행되지 않는다.

## 2) 회원 농가 방문(농촌융복합산업)

- 백련동 편백농원은 가족책임 경영으로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두 형제가 함께 일하고 있다. (할아버지: 농원 총괄, 아버지: 묘목 및 재료관리, 어머니: 식당 운영 및 제품생산과 체험 개발 및 관리, 큰아들: 3차 산업관리, 작은아들: 식당운영)
- 편백은 장수군 지역에서는 흔하지만 외부에서는 특이한 소재라 생각하고 있다. 편백묘목과 지역 공동체 특산물을 생산하는 1차산업, 편백을 다양한 제품 재료로 활용, 최근에는 목재보다 잎을 활용해 오일 등을 생산하는 2차산업, 편백오일을 이용한 제품 만들기 체험, 편백숲 걷기 체험 등 3차산업으로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을 경영하고 있다. 특히 농촌관광은 1·2·3차 산업 가운데 가장 큰 수익을 차지한다.
- 타 지역인의 귀농으로 지역민과 갈등 많았음, 힘든 노동, 소득은 마이너스의 연속으로 정착까지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나눔·공유·비움을 통해 주민들의 신뢰를 얻고 사회적 경제 실현을 추진하고 있다.
- 전라남도 교육청이 지정한 마을학교를 시작으로 청소년 멘토링을 통한 미래의 농업인 육성,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 최근에는 병으로 건강을 잃은 사람,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숲을 방문해 개인의 발을 가꾸고 편백 숲에서 좋은 기운을 얻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해 도입하고 있다.

### 3. 이모저모

